

在日韓國人の 出産力에 關한 小考

目次

I.	緒論
II.	研究資料 및 方法
III.	結果
IV.	考察
V.	結論

I. 緒論

1981年末 現在 日本에 登錄된 在日外國人中 在日韓國人(韓國籍 및 朝鮮籍을 合하여 通稱한다)은 667,325名으로 全體外國人の 84.2퍼센트에 達하고 있다¹⁾. 이들 在日韓國人中 全體의 3분의 2 이상이 日本에서 出生한 者로서 戰前에 本國에서 日本으로 渡航한 在日韓國人 1世의 比率은 每年 減少되고 있다.

日本人의 純再生産率은 1955年 以後 1966年前後(Hinoeuma의 波動)를 除外하면 1.0을 밑도는 水準에 定着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低水準의 出産力을 가진 日本의 社會속에서 居住하는 在日韓國人은 諸 環境의 影響을 받아 人口學의 特性이 日本人의 그것을 닮아가는 것으로 示唆되었다.^{3) 4)} 이상의 觀點에서 日本에서 出生한 在日韓國人の 第2世 또는 3世가 갖는 家族形成의 意識과 第1世가 갖고 있는 傳統的인 韓國的 思考方式의 差異는 將來 在日韓國人の 出産力 水準 및 出産行動樣式의 變動을 提示할 수 있다. 또한 出産力 水準의 評價는 在日韓國人の 將來人口의 豫測은 물론 人口資質 向上에도 도움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研究에서는 人口靜態統計를 利用하여 出産力 水準의 指標가 되는 母兒比(Child Woman Ratio: CWR)⁵⁾를 算出하여 在日韓國人の 出産力 水準을 間接적으로

* 美國 하바드大學校 에너지 및 環境政策센터 研究員.

1) 法務部 大臣官房 司法制調査部編, 第21 出入國 管理統計年報, 昭和57年度, 1982.

2) 日本 厚生 統計協會, 國民衛生의 動向 - 昭和56年, 1981.

3) 金潤信, “在日韓國人の 最近 10年間における 人口學的 推移,” 民族衛生, 第43卷 第3·4號, 1977. pp. 91~102.

4) Y. S. Kim, *A Demographic-Ecological Study of the Korean Population in Ja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kyo, 1978.

5) Barclay, G. W., *Techniques of Population Analysis*, John Wiley & Sons, New York, 1958. p. 192.

檢討하고자 하였다. 또한 一部 在日韓國人을 對象으로 처음으로 出産力에 관한 豫備 調査를 實施하여 在日韓國人의 出産力 水準에 영향을 주는 基本的 背景을 提示하고자 試圖하였다.

II. 研究資料 및 方法

1. 在日韓國人의 出生에 관한 基本的인 日本 政府統計로는 「人口動態統計」⁶⁾를 利用하였고, 出生率의 計算에 필요한 基礎人口는 「在留外國人登錄統計」⁷⁾에 의한 在日韓國人 人口를 擇하였다.

2. 在日韓國人에 있어서 出産力 水準의 地域間 差異를 파악하기 위하여 母兒比 方法을 利用하였다.⁸⁾ 母兒比는 1930年代에 美國에서 開發된 것으로 人口動態統計를 利用할 수 없는 人口集團의 出産力 水準을 나타내는 有効한 指標이다.⁹⁾ 따라서 「在日外國人統計」¹⁰⁾에서 얻어진 在日韓國人의 都道府縣別 人口에 母兒比 方法을 適用하여 出産力 水準을 間接的으로 分析하였다. 一般的으로 母兒比는 0~4歲(유아)의 人口數에 대한 可妊年齡(15~49歲)의 女子人口數의 比率로 나타낸다. 이 研究에서 計算된 母兒比는 在日韓國人 婦人의 대부분이 40歲 以前에 出産을 終了하므로 15~39歲의 女子人口를 分母로 하여 算出하였다.

3. 一部 在日韓國人의 出産力 調査를 위하여 日本 東京都內에 在日韓國人이 가장 많이 居住하는 足立區(Adachi 區)를 擇한 후, 妻의 年齡이 50歲未滿의 在日 韓國人 夫婦를 對象으로 1977年 8月부터 1978年 3月까지 面接調査 및 質問紙調査를 並行 實施하였다. 따라서 在日 大韓民國 居留民團 東京足立支部(以下「東京足立支部」로 略稱한다)에 登錄되어 있는 在日 韓國人(여기서는 韓國籍을 가진 者가 해당됨) 約 800~1,000世帶中 無作爲 抽出에 의하여 對象世帶를 選定하고 質問紙를 郵送하여 世帶主가 記入한 후 返送하도록 要求하였다. 또한 東京足立支部를 訪問하는 해당 世帶를 對象으로 面接調査를 하였다. 調査에 使用한 調査票는 日本 厚生省 人口問題研究

6) 厚生省 大臣官房 統計情報部編, 人口動態統計(上·下卷) (1955~1975年 各年), 1957~1977.

7) 法務省 大臣官房 司法 法制 調査部編, 出入國 管理統計年報, (1955~1975年), 1956~1976.

8) Barclay, G. W., *op. cit.*, 1958.

9) Bouge, D. J. and Palmore, J. A., "Some Empirical and Analytic Relations among Demographic Fertility Measures with Regression Models of Fertility Estimation." *Demography* 1 : 3160-338, 1964.

10) 法務省編, 在留 外國人 統計 (1964, 1969, 1974年), 1966, 1971, 1976.

所에서 使用한 「第6次 出産力 調査」의 調査票¹¹⁾와 世界出産力 調査¹²⁾에서 使用한 調査票를 參考로 하여 作成하였다.

Ⅲ. 結 果

出生의 動向

在日韓國人の 1955年 以後 1975년까지의 出生을 비롯한 死亡, 嬰兒死亡, 死産 및 婚姻에 관한 動態率을 보면 表 1과 같다. 粗出生率은 1955年の 25.0(人口1,000名當)에서 1959년에는 20.4로 減少하였다. 그 後 1966年 「히노에우마」의 影響에 의한 出生減少¹³⁾를 除外하면 1972년까지 20前後를 維持하다가 1973년부터는 20未滿의 水準으로 低下하고 있다. 1955年 이후 1965年에 있어서 出生率의 減少率은 13.2퍼센트, 1965年 이후 1975년에는 17.5퍼센트로 나타나 最近에는 在日韓國人の 出生率이 현저하게 減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母兒比에 의한 出産力 水準

A. 都道府縣別 分布

1975年末 在日韓國人の 日本内 都道府縣別 人口分布를 보면(表 2 參照) 「大阪府」(大阪市를 포함한 부근지역에) 全體 在日韓國人の 28.1퍼센트가 居住하여 가장 많은 人口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東京都」에 11.4퍼센트, 「兵庫縣」10.5퍼센트, 「愛知縣」8.5퍼센트, 「京都府」6.9퍼센트, 「神奈川縣」4.5퍼센트, 「福岡縣」4.0퍼센트의 順으로 이룬 바 日本의 7大 都道府縣에 全體 在日韓國人の 約 74퍼센트가 集中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65년부터 1975년까지의 10年間에 都道府縣의 人口增減을 보면 「福岡縣」을 除外한 上記의 6大 都道府縣에서 1位에서 6位까지의 人口增加數를 차지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大都市集中으로 居住하고 있는 在日韓國人(1974年)의 母兒比에 의한 都道府縣別 出産力 水準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香川」이 566.3으로 最高値를, 「磁賀」540.5, 「埼玉」의

11)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昭和47年, 第6次 出産力 調査結果の要點”, 人口問題 研究資料, 第200號, 1974.

12) Rodriguez, G., “Assessing the Availability of Fertility Regulation Methods: Report on a Methodological Study”, *World Fertility Survey, Scientific Report Na 1*. Feb. 1977.

13) Y. S. Kim, “Fertility of the Korean Population in Japan Influenced by a Folk Superstition in 1966.”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vol. 11, 1979, pp. 457~464.

Table 1. Trends in Vital Rates of the Korean Population in Japan (1955~1975)

在日韓國人の 人口動態率 變化趨勢 (1955~1975)

Year	CBR (1)	CDR (2)	IMR (3)	FDR (4)	CMR (5)	NIR (6)
1955	25.0	6.2	30.5	65.7	1.9	18.8
1956	24.5	6.7	30.9	61.7	3.1	17.8
1957	22.1	6.6	33.6	69.5	3.8	15.5
1958	21.8	6.3	30.9	68.8	4.6	15.5
1959	20.4	6.5	29.7	65.9	5.8	13.9
1960	20.8	6.5	26.2	68.5	6.1	14.3
1961	20.8	6.1	23.5	65.1	6.6	14.7
1962	20.7	6.1	23.0	67.0	8.0	14.6
1963	20.9	5.7	18.4	61.6	7.9	15.2
1964	21.7	5.7	16.8	57.9	8.8	16.0
1965	21.7	5.7	15.8	56.3	9.8	16.0
1966	16.4	5.6	18.5	64.9	9.1	10.8
1967	21.9	5.6	15.0	50.7	10.0	16.3
1968	19.0	5.0	12.3	48.8	10.3	14.0
1969	19.6	5.0	12.9	45.9	10.0	14.6
1970	19.7	5.0	11.3	46.2	11.2	14.7
1971	20.2	4.7	10.1	41.2	11.8	15.5
1972	20.0	4.8	9.8	46.6	11.8	15.2
1973	19.8	4.7	10.3	42.4	11.7	15.1
1974	18.4	4.7	8.2	44.4	12.1	13.7
1975	17.9	4.7	8.3	40.5	11.2	13.2

Note : Data from Vital Statistics (1955~1975)

(1) CBR : crude birth rate

(4) FDR : foetal death rate

(2) CDR : crude death rate

(5) CMR : crude marriage rate

(3) IMR : infant mortality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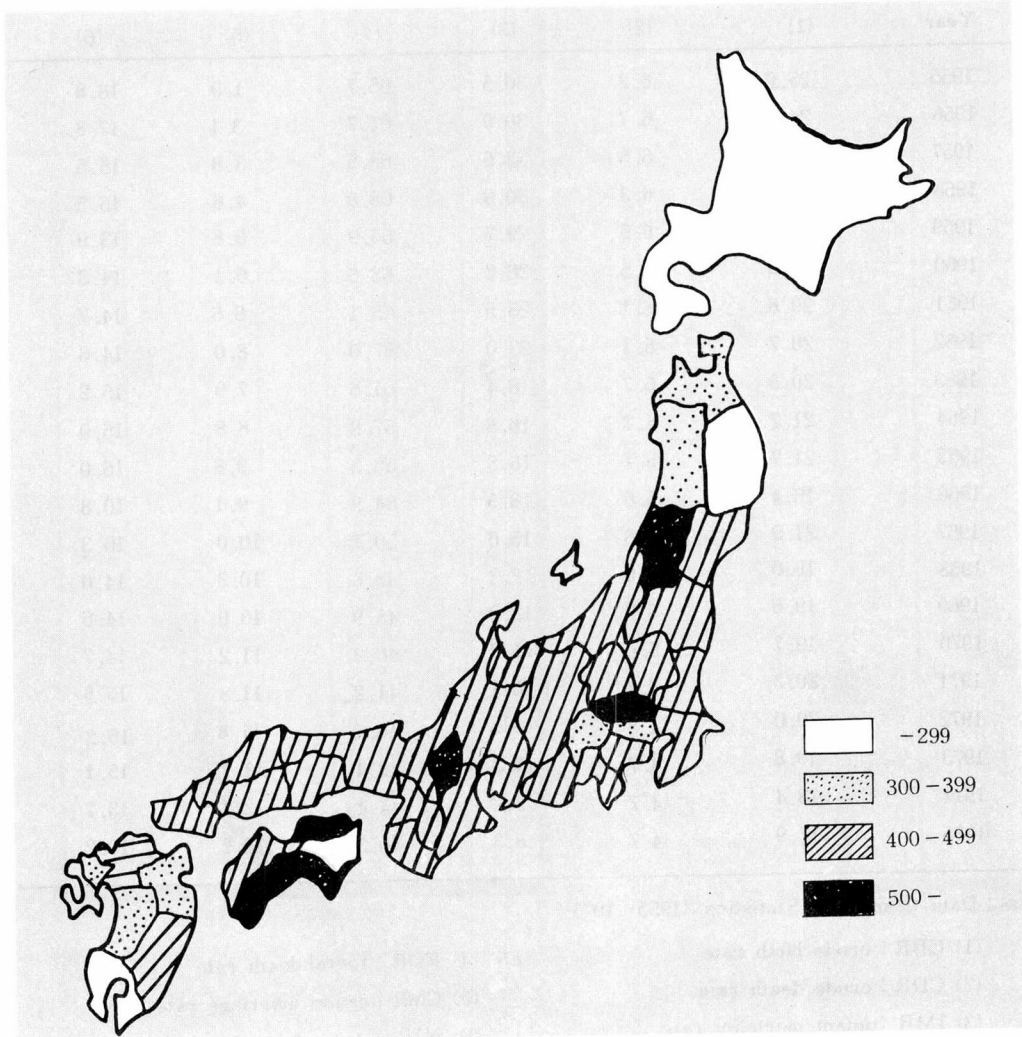
(6) NIR : natural increase rate

順으로 500以上の 母兒比를 나타내는 地域이 5縣이었다. 또한 母兒比가 300 未滿인 地域은 「德島」(253.0)가 最低로, 「宮城」, 「鹿兒島」, 「長崎」, 「北海島」의 順을 나타내고 있다. 7大主要 都道府縣의 母兒比는 「東京都」(394.3)를 除外한 6大道府縣에서 400~500의 水準을 보이고 있다.

다음에 46個 都道府縣中, 在日韓國人이 가장 많이 居住하는 7大 都道府縣과 가장 적게 居住하는 7縣을 擇하여 都市와 地方間의 出産力 水準을 比較하고자 하였다. 따

Figure 1. Child-Woman Ratio (CWR)* of the Korean Population in Japan by Prefecture, 1974

縣別 在日韓國人の 母兒比 (1974)



* (0 ~ 4 population / 15 ~ 39 females) × 1,000

라서 7 大都道府縣은 都市와 都市以外의 地域으로 區分하여 前者를 A地域, 後者를 B地域으로 稱하였고, 人口가 적은 7 縣을 C地域으로 稱하였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4年 全體 在日韓國人の 母兒比는 398.5로서 A地域의 平均値(400.2)를 除外하면 B地域(383.5), C地域(296.9)보다 높았다.

1964年 이후 1969년까지 5年間의 母兒比 增減을 보면 A, B, C의 各 地域에서 增

Table 2. Change in Korean Population in Japan by Prefectures between 1965 and 1975
 縣別 在日 韓國人의 人口變化(1965~1975)

Prefectures	Population		Increase	
	1965	1975	Population	Density
Hokkaido	8,853	7,059	-1,799	-0.092
Aomori	2,258	1,853	-405	-0.042
Iwate	1,800	1,502	-298	-0.020
Miyagi	3,294	3,634	+340	+0.047
Akita	1,238	1,058	-180	-0.016
Yamagata	681	693	+12	+0.001
Fukushima	2,513	2,173	-340	-0.025
Ibaragi	3,555	3,878	+323	+0.053
Tochigi	1,946	2,101	+155	+0.024
Gunma	2,645	2,850	+205	+0.032
Saitama	5,751	9,927	+4,176	+1.099
Chiba	6,944	9,975	+3,031	+0.597
Tokyo	66,678	74,047 (11.4)	+7,369	+3.442
Kanagawa	25,592	29,141 (4.5)	+3,549	+1.488
Niigata	2,644	2,638	-6	-0.001
Toyama	1,889	1,932	+43	+0.010
Ishikawa	3,242	3,323	+81	+0.019
Fukui	4,973	4,927	-46	-0.011
Yamanashi	2,124	1,645	-479	-0.107
Nagano	4,913	4,876	-37	-0.003
Gifu	10,654	10,971	+317	+0.030
Shizuoka	7,533	8,230	+697	+0.090
Aichi	46,207	54,807 (8.5)	+8,600	+1.692
Mie	7,360	8,001	+641	+0.111
Shiga	6,156	7,186	+1,030	+0.256
Kyoto	39,487	44,962 (6.9)	+5,475	+1.107
Osaka	158,596	181,621 (28.1)	+23,025	+12.419
Hyogo	58,786	68,177 (10.5)	+9,391	+1.125
Nara	4,927	5,689	+762	+0.206
Wakayama	4,892	4,963	+71	+0.015
Tottori	1,710	1,561	-149	-0.043
Shimane	1,984	1,396	-588	-0.089
Okayama	7,935	8,503	+568	+0.080

(continued)

Table 2 . Continued

Prefectures	Population		Increase	
	1965	1975	Population	Density
Hiroshima	14,406	16,292	+1,886	+0.223
Yamaguchi	16,166	14,968	-1,198	-0.199
Tokushima	347	322	-25	-0.006
Kagawa	825	1,033	+208	+0.111
Ehime	2,173	2,024	-149	-0.026
Kochi	968	932	-36	-0.005
Fukuoka	25,518	26,010 (4.0)	+492	+0.100
Saga	1,730	1,339	-391	-0.162
Nagasaki	4,114	2,554	-1,560	-0.381
Kumamoto	2,168	1,609	-559	-0.076
Oita	3,571	2,998	-573	-0.091
Miyazaki	1,249	1,003	-246	-0.032
Kagoshima	737	468	-269	-0.029
Okinawa	-	305	+305	+0.136
All Prefecture	583,537	647,156	+63,619	+0.171

Note : Data from Shutsunyukoku Kanri Nenpo

Ministry of Justice, Office of Immigration 1965, 1975.

Remark : Each figure in parenthesis shows percentage to total population 1975 and seven most densely populated prefectures are about 74.0 percent of total population 1975.

加하였다. (A지역의 「大阪市」, C지역의 「秋田縣」과 「徳島縣」에서는 減少를 보인다) 5年間に 있어서 各 地域의 增加率을 보면 C지역이 23.8퍼센트로 A지역(13.9%), B지역(18.6%) 보다 높았다.

또한 1969年에서 1974年 期間의 母兒比 變化를 보면 B, C지역의 平均 母兒比는 增加를 보인 反面, A지역에서는 弱한 減少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A지역의 「大阪市」, 「名古屋市」, 「横浜市」 「北九州市」의 4大都市에서 減少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B, C지역에서는 B지역의 「東京都」, C지역의 「鹿兒島」를 除外한 其他의 道府縣에서 增加를 나타냈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의 母兒比 增加率을 보면 C지역이 15.1퍼센트로서 A지역(-1.08%), B지역(1.52%)에 比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以上에서

Table 3. Child-Woman Ratio*of the Korean Population in Japan by Region
(1964~1974)

地域別 在日韓國人の 母兒比(1964~1974)

Regions	Year		
	1964	1969	1974
A			
Osaka-shi	458.2	457.5	429.9
Tokyo-to (23wards)	379.2	387.3	401.7
Kobe-shi	409.3	428.3	459.8
Nagoya-shi	456.8	502.5	477.9
Kyoto-shi	411.1	466.3	476.8
Yokohama-shi	322.5	418.9	397.0
Kitakyushu-shi	364.2	519.5	513.8
(Mean)	(400.2)	(455.8 ¹)	(450.9)
B			
Osaka-fu	448.5	536.5	483.7
Tokyo-to	343.5	427.1	358.1
Hyogo-ken	433.6	471.9	480.0
Aichi-ken	392.4	480.1	510.1
Kyoto-fu	374.6	447.5	555.8
Kanagawa-ken	372.3	445.1	456.6
Fukuoka-ken	319.8	377.7	389.9
(Mean)	(383.5)	(455.1)	(462.0)
C			
Akita-ken	264.7	245.4	386.4
Miyazaki-ken	339.1	355.0	424.9
Kagawa-ken	232.7	459.3	566.3
Kochi-ken	353.5	510.6	535.5
Yamagata-ken	246.5	414.6	518.8
Kagoshima-ken	295.0	375.0	277.2
Tokushima-ken	346.7	213.3	253.0
(Mean)	(296.9)	(367.6)	(423.2)
All Japan	398.5	453.9	445.0

Note : A : Seven biggest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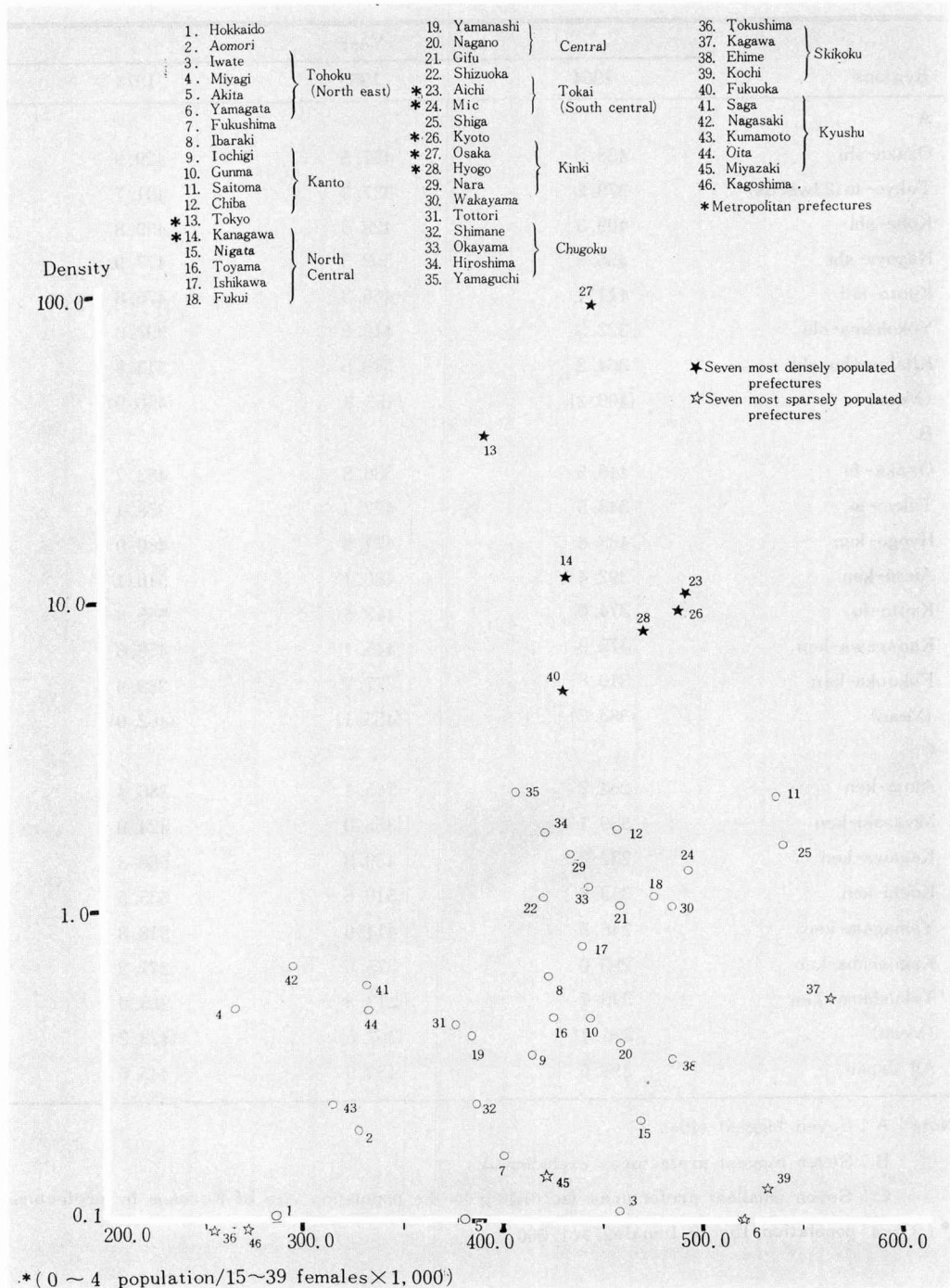
B : Seven biggest prefectures excluding A

C : Seven smallest prefecture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size of Koreans by prefecture)

* (0 ~ 4 population/15~39 females) × 1,000

Figure 2. Child-Woman Ratio* and Density by Prefecture, Korean Population in Japan, 1974

縣別 在日韓國人の 母兒比 및 密度, 1974



1964년부터 1974년 까지의 10년 동안의 母兒比 變動推移를 보면 在日韓國人 人口集中地域이 非集中地域보다 出産力 水準이 높으나 近年에 이르러 그 差는 縮小하고 있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즉, 地方에 居住하는 在日韓國人の 母兒比 增加로 都市와 地方間의 母兒比 差가 縮小된 것으로 示唆된다.

또한 都道府縣別로 본 在日韓國人(1974年)의 人口密度와 母兒比의 關聯性を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口密度가 높은 7大都道府縣에서는 母兒比值가 平均的으로 高르게 높으나, 前述한 C地域에서는 地域間에 母兒比의 差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7大都道府縣(A+B)과 C地域에 있어서 人口密度와 母兒比의 相關係數를 보면 -0.233 과 0.570 으로서 C地域이 높은 相關을 보이고 있다.

B. 母兒比와 女子의 就業人口比率

日本人口에 있어서 婦人の 就業人口 增加가 出産力の 低下에 影響을 주는 것으로 示唆되었다.¹⁴⁾

前述한 바와 같이 A, B, C의 各 地域에 있어서 在日韓國人 女子의 就業率과 母兒比 및 就業 3部門別(1次, 2次, 3次 産業) 就業 女子人口比率와 母兒比의 相關性を 各 各 比較 檢討하였다(단, 여기서 計算된 母兒比는 女子人口를 15~49歲 人口로 하였다).

女子人口의 就業率을 보면(表 4 參照), C地域의 「鹿兒島」가 가장 높고, A地域의 「京都市」가 가장 낮다. 各 地域의 平均就業率은 C地域이 가장 높고 A地域이 가장 낮아, 것은 C地域이 他地域보다 第1次 産業 就業人口 比率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A, B, C 各 地域의 就業率과 母兒比의 相關係數를 보면 各各 -0.86 , -0.69 , -0.61 로 모든 地域에서 就業率과 母兒比는 強한 逆(-) 相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女子人口의 就業率이 높을수록 母兒比는 낮아지고 있어, 女子의 就業人口 增加가 間接的으로 出産力에 減少를 줄 것으로 示唆된다.

또한 各 地域別로 女子의 就業別 就業人口比率과 母兒比의 相關을 보면 1次産業 就業人口比率과는 C地域에서, 2次 및 3次産業 就業人口比率과는 B地域에서 各各 0.55 , 0.66 , -0.70 의 높은 相關을 보인다. 地域別로 母兒比值와의 相關을 보면 A地域은 第1次産業 就業人口比率(0.47), B地域은 第3次産業 就業人口比率(-0.70), C地域은 第1次産業 就業人口比率에서 0.55 의 높은 相關을 보이고 있다. 各 地域에서 第3次 産業 就業人口比率이 增加할 수록 母兒比值는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厚生省 人口問題研究所, 前掲書, 1974.

Table 4 . Child-Woman Ratio¹⁾, Employment Rate²⁾, and Percent Distribution of Economically Active Female Population³⁾ by Industrial Classification (1974)

産業分類에 의한 女性 經濟活動參與 人口의 母兒比 雇傭率 및 百分率分布 (1974)

Regions	Employment Rate	Industrial Classification			CWR
		Primary	Secondary	Tertiary	
A					
Osaka-shi	6.53	4.9	51.1	41.9	358.1
Tokyo-to ⁴⁾	10.91	1.0	17.5	80.7	324.3
Kobe-shi	7.51	1.5	35.9	61.7	379.4
Nagoya-shi	6.63	1.7	26.1	72.0	398.9
Kyoto-shi	5.88	4.3	48.6	46.5	401.4
Yokohama-shi	10.30	2.9	12.3	84.4	318.1
Kitakyushu-shi	6.21	5.2	20.2	73.4	438.5
B					
Osaka-fu	6.35	7.8	35.5	54.1	413.9
Tokyo-to	10.30	1.2	14.6	83.1	308.6
Hyogo-ken	7.4	3.0	39.9	55.9	402.6
Aichi-ken	7.11	3.9	37.4	57.2	431.7
Kyoto-fu	8.18	11.3	30.2	57.1	466.9
Kanagawa-ken	9.60	1.3	22.2	75.9	371.7
Fukuoka-ken	8.80	8.8	28.8	61.5	320.7
C					
Akita-ken	14.17	5.7	13.2	81.1	299.3
Miyazaki-ken	11.07	2.7	10.8	86.5	324.1
Kagawa-ken	7.46	12.0	28.0	60.0	442.2
Kochi-ken	13.75	5.4	21.6	73.0	421.3
Yamagata-ken	10.86	8.3	8.3	83.3	401.2
Kagoshima-ken	20.11	8.3	22.2	69.4	215.4
Tokushima-ken	11.30	0.0	15.4	84.6	216.5
Corr. Coeff.	A : -0.85872	0.46665	0.27146	-0.30351	
with CWR	B : -0.69120	0.43400	0.66036	-0.70145	
	C : -0.60557	0.55063	0.19380	-0.36418	

Note : A : Seven biggest cities

B : Seven biggest prefectures excluding A

C : Seven smallest prefecture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size of Koreans by prefecture)

1) $(0 \sim 4 \text{ population} / 15 \sim 49 \text{ females}) \times 1,000$

2) $(\text{Economically active female population} / 15^+ \text{ females}) \times 100$

3) (Population for "not classified" are excluded)

4) (23 wards)

出産力 調査成績

1975年末 現在 東京都 足立區内に 居住하는 在日韓國人은 7,673名으로 東京都内에서 最多 居住地域이다 (表 5 參照).

戰前부터 足立區와 그 주위의 荒川區에는 韓國의 南部地域 (특히 濟州道) 出身者가 集團 居住한 地域이다.¹⁵⁾ 本 調査中 民團 東京支部 登録標를 檢討하는 過程에서도 濟州道 出身者가 많이 居住하는 것으로 確認됐다.

Table 5. Distribution of Koreans in the Tokyo Metropolis, 1975
東京都의 韓國人分布, 1975

Rank	Ward	Population	Percent
1	Adachi	7,673	12.5
2	Arakawa	5,919	9.7
3	Ota	4,677	7.6
4	Setagaya	3,168	5.2
5	Shinjuku	2,888	4.7
6	Shibuya	1,808	3.0
7	Minato	1,731	2.8
Sub-total		27,864	45.5
Total (23 Wards)		61,247	100.0

Source: Ministry of Justice,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for Foreigners in Japan*, 1976.

A. 基本的 特性 및 初婚年齡

總 調査 應答된 件數는 327件으로 質問紙 調査票의 回收率은 40.6퍼센트이었다.

全 調査對象 婦人의 平均年齡은 36.1歲, 夫의 平均年齡은 40.8歲로 夫婦의 年齡差는 4.7歲이었다 (表 6 參照).

初婚時 平均年齡은 夫가 27.6歲, 妻가 22.9歲로 그 差는 4.7歲이었으며 妻의 年齡이 35歲 以上에서는 初婚年齡의 差가 5.5歲 以上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戰後에 在日韓國人의 男多女少人口로 인하여 結婚問題가 深刻했던 事實을 反映한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15) 泉靖一, “東京における 濟州島人”, 民族學研究, 16(1), 1951.

Table 6. Sample Sizes, Means and Deviations* of Husband's and Wife's Age and Age at Marriage by Wife's Age

婦人の 年齢別 結婚年齢 및 男便과 婦人の 結婚年齢 差異, 平均年齢 및 標本數

Wife's Age	Sample	Husband		Wife		Difference of (1) and (2)
		Age	Age at marriage (1)	Age	Age at marriage (2)	
20~24	21	25.0 (1.63)	22.6 (2.15)	23.1 (0.90)	20.9 (1.68)	1.7
25~29	48	31.8 (4.67)	26.5 (3.85)	27.3 (1.54)	22.3 (2.18)	4.2
30~34	81	35.5 (2.91)	27.0 (3.45)	32.2 (1.22)	23.6 (2.08)	3.4
35~39	66	42.5 (6.14)	28.9 (9.14)	37.0 (1.46)	23.1 (4.48)	5.8
40~44	60	42.5 (4.74)	28.6 (7.88)	42.2 (1.63)	22.4 (5.98)	6.2
45~49	51	52.8 (6.26)	28.7 (6.29)	47.6 (1.66)	23.2 (5.43)	5.5
Total	327	40.8 (9.61)	27.6 (6.39)	36.1 (7.47)	22.9 (4.12)	4.7

* Shown in parentheses

B. 妻의 出生地와 教育水準

妻의 年齢階級別로 出生地分布를 보면(表 7 參照), 低年齢層에 이를 수록 日本에서 出生한 者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歲 未滿에서는 約 90퍼센트 程度가 日本에서 出生한 者로, 將來 在日韓國人の 日本出生者 比率은 더욱 增加될 것으로 豫想된다.

教育水準을 보면 全 年齢을 통하여 「中學」이 38.5퍼센트로 가장 많고 「高等學校」「小學校」「大學」의 順을 나타내고 있다. 35歲 以上の 높은 年齢層일수록 「中學」以下가 75퍼센트 以上の 낮은 教育水準을 나타냈다.

Table 7. Wife's Birth Place and Education Level by Age, %

婦人の 年齢別 出生地 및 教育水準 %

Age	Birth Place		Education Level				Total
	in Korea	in Japan	Primary	Secondary	High school	College or more	
20~24	8.6	91.4	4.3	28.6	52.9	14.3	100.0
25~29	12.5	87.5	6.3	43.8	43.8	6.3	100.0
30~34	22.2	77.8	7.4	37.0	48.1	7.4	100.0
35~39	27.3	72.7	36.4	50.0	13.6	-	100.0
40~44	30.0	70.0	35.0	40.0	25.0	-	100.0
45~49	35.3	64.7	52.9	23.5	23.5	-	100.0
Total	20.7	79.3	20.7	38.5	37.1	3.7	100.0

C. 經濟生活 程度

妻의 年齡階級別로 世帶의 平均月收入을 보면(表 8 參照), 年齡이 높을수록 「20萬圓 以上」이 많았다. 또한 住宅所有 狀況을 보면 「自宅 所有者」가 40歲 以上에서는 50

Table 8. Economic Characteristics by Wife's Age, %
婦人의 年齡別 經濟的 特性, %

Age	Family Income (Yen/Monthly)			Type of Housing			
	Less than 150,000	150,000~200,000	More than 200,000	Own house	Public	Private	Allowance
20~24	71.4	28.6	-	-	-	28.6	-
25~29	31.3	50.5	18.7	6.1	6.1	18.8	18.8
30~34	18.5	48.1	53.3	22.2	11.1	14.8	7.4
35~39	4.5	36.4	59.1	40.9	13.6	18.2	9.1
40~44	5.0	20.0	75.0	50.0	10.0	25.0	10.0
45~49	4.9	23.5	70.6	82.3	-	-	11.8
Total	16.5	35.8	47.7	37.6	8.3	16.5	10.1

Table 8. Continued

Age	Type of Housing		Type of Household Composition*			Total
	Rent	Others	A	B	C	
20~24	71.4	-	85.6	-	14.3	100.0
25~29	43.8	6.1	75.0	12.5	12.5	100.0
30~34	29.6	14.8	66.7	22.2	11.1	100.0
35~39	9.1	9.1	27.3	45.5	27.2	100.0
40~44	-	-	20.0	65.0	15.0	100.0
45~49	-	5.9	17.6	41.2	41.2	100.0
Total	20.2	7.3	45.0	34.9	20.2	100.0

Note : *A : Husband+ Wife + Children

B : A+ Other Male or Female Head+ Children

C : Others (Including A+B+ Non Family Household)

퍼센트 이상을 나타내, 年齡이 높을 수록 安定된 生活을 하는 것으로 說明된다.

一般的으로 「公營住宅」(日本에서는 「公營借家」로 通用됨)의 入住權이 在日韓國人에게 認定되지 않아 그 所有比率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住宅에 살고 있는 在日韓國人 夫婦의 어느 한 쪽은 日本 國籍을 所持할 可能性이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世帶別 形態를 보면 年齡이 낮을수록 夫婦와 子女만으로 구성된 世帶가 많아 在日韓國人에서도 核家族 形態로 轉換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D. 婦人의 家族計劃 實施狀況, 人工流産 및 就業活動에 對한 態度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妻의 年齡階級別로 家族計劃 實施狀況을 보면 30~39歲의 年齡層에서 「現在 實施하고 있다」로 答한 者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그 比率이 가장 높았다. 또한 「過去에 實施한 적이 있다」로 答한 者를 包含시키면 30~44歲 年齡層에서 60퍼센트 程度의 家族計劃 實施 經驗率을 나타내고 있다. 「人工流産」의 經驗有無를 보면 全體의 47.7퍼센트가 1回 以上の 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女子의 就業狀況은 出産力의 生活週期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示唆되었다¹⁶⁾. 妻의 就業狀況 및 就業活動에 對한 態度를 보면 「現在 就業하고 있다」라고 答한 婦人에서 家族計劃 實施 比率이 過去의 經驗을 包含하여 77퍼센트, 人工流産의 經驗比率이 54퍼센트로 높은 水準을 나타냈다 (表 10參照). 따라서 妻의 就業率이 높을수록 家族

Table 9. Family Planning Practice and Experience of Induced Abortion by Wife's Age, %
婦人의 年齡別 家族計劃實踐率 및 人工妊娠中絶의 經驗率, %

Age	Family Planning Practice			Frequency of Induced Abortion		Total
	Currently practicing	Practiced in past	Never practiced	0	1 or more	
20~24	-	28.6	71.4	85.7	14.3	100.0
25~29	25.4	6.3	68.8	75.0	25.0	100.0
30~34	55.7	3.7	40.7	40.7	59.3	100.0
35~39	50.0	13.6	36.4	45.5	54.5	100.0
40~44	40.0	30.0	30.0	50.5	50.5	100.0
45~49	11.8	29.4	58.8	47.1	52.9	100.0
Total	36.7	16.5	46.8	52.3	47.7	100.0

16) Fong, M. 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Fertility: Some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Social Biology*, 23 (1), 1976. pp. 45 ~ 54

計劃實施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女子人口의 就業率의 上昇은 出生減少에 間接的인 影響을 줄 것으로 豫想된다.

Table 10. Percent Distribution of Family Planning Practice, Experience of Induced Abortion by Wife's Labor Participation (Attitude)
婦人의 勤勞에 대한 態度別 家族計劃實踐率 및 人工妊娠中絶經驗率

	Family Planning Practice			Frequency of Induced Abortion		Total
	Currently practicing	Practiced in Past	Never practiced	0	1 or more	
Don't Want to Work	43.3	6.7	50.0	66.7	33.3	100.0
Want to Work	33.3	16.7	50.0	47.0	53.0	100.0
Work Now	38.5	38.5	23.0	46.2	53.8	100.0
Total	36.7	16.5	46.8	52.3	47.7	100.0

E. 理想子女數 및 現實希望子女數

家族의 크기에 대한 意識 및 態度는 出産力 水準에 影響을 주는 背景이 되고 있다.¹⁷⁾ 따라서 夫와 妻의 理想子女數, 追加希望子女數 등에 대한 態度를 보면 表 11과 같다.

Table 11. Means of Ideal Number of Children, Actual Wanted Children by Wife's Age
婦人의 年齡別 希望子女數 및 平均理想子女數

Age	Ideal Number of Children		Live Births	Number of Living Children	Number of Additional Children Desired		Actual Wanted Children*	
	Husband	Wife			Husband	Wife	Husband	Wife
20~24	2.4	2.3	0.9	0.9	1.5	1.3	2.4	2.2
25~29	2.8	2.4	1.9	1.3	1.4	1.1	2.7	2.4
30~34	3.0	2.6	2.8	2.6	0.6	0.6	3.2	3.0
35~39	3.0	2.8	3.2	3.0	0.4	0.5	3.4	3.2
40~44	3.4	3.1	3.8	3.4	0.2	0.0	3.6	3.4
45~49	3.6	3.3	4.0	3.7	0.1	0.0	3.8	3.7
Total	3.1	2.8	3.1	2.8	0.4	0.2	3.2	3.0

* Actual wanted children = Number of living children + Number of additional children desired

17) 濱英彦, 子どもおよび 子供數に對 する考え方, 人口問題研究, 第130號, 人口問題研究所, 1974. pp. 36~45.

全 年齡을 통하여 理想子女數는 夫가 3.1名, 妻가 2.8名으로 男便이 婦人보다 0.3名이 높았다. 男便은 30歲 未滿에서, 婦人은 40歲 未滿에서 各各 3名 未滿의 理想子女數를 나타내고 있다. 總平均出產數는 3.1名으로 35歲 以上에서는 平均보다 높았다. 現存子女數는 平均 2.8名으로, 35歲 以上에서는 3名 以上의 子女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追加希望子女數를 보면 現存子女數가 적은 젊은 年齡層일수록 追加希望子女數가 많았다. 따라서 追加希望子女數와 現存子女數를 합하면 理論的으로 現實希望子女數가 얻어진다. 現實 希望子女數는 平均的으로 夫가 3.2名, 妻가 3.0名으로 나타나, 앞서 나타난 理想子女數 보다 各各 0.1名, 0.2名이 많았다. 年齡階級別로 理想子女數와 現實希望子女數를 比較하여 보면 男女共通으로 30歲 以上에서는 現實希望子女數가 많은 反面, 30歲 未滿의 젊은 年齡層에서는 理想子女數 보다 現實 希望子女數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F. 出生順位別 出生兒分布

出生順位別 出生時 母의 年齡階級別로 出生兒分布를 보면 表 12와 같다.

첫번째 出生兒는 母의 年齡이 20~24歲 階級에서 最高의 比率를 나타내고 두번째 세번째 出生兒는 30~34歲 年齡階級에서 各各 出生이 集中되어 있다. 따라서 總 出生의 約 76퍼센트가 母의 年齡이 29歲 以下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번째 出生兒는 母의 年齡이 29歲 以下에서 93퍼센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總出生兒의 3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IV. 考 察

在日韓國人에 관한 日本政府 統計資料로 現在 公表되고 있는 人口靜態統計로는 「國

Table 12. Percent Distribution of Wife's Age at Birth Order

出生順位別 出生時 婦人의 年齡分布(百分率)

Order	Wife's Age at Birth					Total
	15~19	20~24	25~29	30~34	35+	
1	7.5	50.9	34.0	5.7	1.9	32.8
2	1.0	35.1	45.4	13.4	5.1	29.0
3	-	11.6	63.8	21.7	2.9	20.2
4	-	7.9	36.8	47.4	7.9	19.8
5+	-	-	30.3	42.4	27.3	8.2
Total	2.8	29.7	43.2	17.7	6.6	100.0

勢調査」와 「外國人登録統計」에 의한 人口가 代表的이다. 그러나 戰前의(1945年 以前) 在日韓國人 人口는 前者의 統計資料가 後者보다 많고 보다 正確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戰後에는 그 反對로 나타나고 있다.¹⁸⁾ 이와 같이 두가지 統計上에 差가 생기는 理由는 在日韓國人에 대한 戰前과 戰後에 있어서의 法的地位의 差로 발생된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1. 在日韓國人 人口는 1965年 以後 급격한 社會變動이 없이 出生率 및 死亡率이 日本 人口의 그것에 接近하는 水準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出生率과 死亡率의 改善을 生活環境과 關聯지어, 1950年 以後에 日本人口의 人口轉換이 1960年代의 經濟成長을 계기로 進行한 것¹⁹⁾ 을 비추어 보면 同期間 동안 在日韓國人의 生活環境도 서서히 改善된 것으로 豫想된다. 1966年(Hinoeuma 現象)의 出生減少는 在日外國人中 在日韓國人에서만 나타난 現象으로 흥미가 있다.²⁰⁾ 이 같은 現象은 日本人과 같은 理由(1966년에 태어난 女兒는 나쁘다는 迷信)에 의한 現象인지 또는 다른 要因에 의한 것인지는 不明하다. 따라서 이 點에 관해서는 社會·民俗學的인 調查研究를 통하여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2. 靜態統計 및 特殊統計를 利用하여 出産力을 推定하는 代表的 方法에는 Child - Woman Ratio Method²¹⁾와 Own Children Method^{22) 23)} 의 두가지가 利用되고 있다. 在日韓國人에 관한 出産力 水準의 地域間格差에 대한 分析은 統計資料의 未備로 「外國人登録統計」에서 얻어지는 都道府縣別 人口에 Child - Woman Ratio Method를 適用하여 地域別 出産力 水準을 間接的으로 比較하였다. 母兒比는 過去 5年間の 出生數를 0~4歲 人口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本來는 0~4歲 코호트의 過去 5年間の 死亡을 考慮해 넣어야 한다. 이 研究에서는 乳兒死亡率의 地域差가 母兒比의 地域差에 큰 影響을 주지 않는다는 假定下에, 또한 統計資料의 未備로 地域別 死亡統計의 補正을 省略하였다.

18) Y. S. Kim, *op. cit.*, 1978.

19) 安川正彬, 人口의經濟學, 春秋社, 1977. pp. 209~217.

20) Y. S. Kim, *op. cit.*, 1979.

21) Barclay, G. W., *op. cit.*, 1958.

22) L. J. Cho, et al, *Differential Current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hicago, 1971. pp. 303~353.

23) 伊藤達也, 山本千鶴子, “同居兒法による最近の差別出産力の計測”, 人口問題研究, 第142號, 人口問題研究所, 1977. pp. 16~36.

3. 一部 在日韓國人을 對象으로 처음 實施한 出産力 調査는 出産力에 直接・間接으로 影響을 주는 背景, 子女數에 대한 態度 등을 把握함으로써 將來 在日 韓國人의 出産力 分析을 위한 基礎資料로서 큰 意義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調査에서는 調査를 기피하는 者가 많아 質問紙 調査票의 回收率(40.6%)의 低下와 調査上에 곤란함이 많았음을 問題點으로 指摘하고자 한다. 또한 調査의 對象이 韓國系 在日韓國人에 局限하였으므로 朝鮮系의 在日韓國人의 出産力에 관한 行動樣式과는 差가 있을 수도 있다고 考慮된다. 또한 이 論文에서는 調査結果의 一部 結果만을 列擧하였다. 在日韓國人의 平均月收入은 20萬圓 以下가 52.3퍼센트로서 日本人 근로자 世帶別 所得(約 26萬圓:1976年)²⁴⁾에 比하여 낮은 水準이나 質問紙에 自己記入하는 問題點도 생각할 수 있다. 住宅의 所有狀況을 보면 自宅所有가 日本人(1975年)의 57.8퍼센트 보다 낮아 在日韓國人의 住宅所有事情이 深刻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現象은 公營 住宅의 入住不可, 기타 家옥의 매매에서 생기는 不便함, 差別²⁵⁾ 등에서 과 生될 수도 있어 在日韓國人의 法的・社會的 地位向上이 더욱 要求되는 바이다. 在日韓國人의 世帶形態는 젊은 年齡層일수록 大家族制度를 벗어나 日本人과 비슷한 核家族의 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全體的으로 調査에 應答한 在日韓國人의 理想子女數에 대한 態度는 3.0名으로 우리나라의 3.1名(1973年)²⁶⁾과 日本의 2.6名(1977年)²⁷⁾의 中間에 位置하는 態度를 나타내고 있다. 以上에서 在日韓國人 女子의 將來 人口比率과 母兒比의 相關性 및 出産力 豫備調査 結果를 종합하면 在日韓國人 女子의 就業狀況이 出産力에 間接적으로 影響을 주는 것으로 示唆된다. 따라서 이같은 結果를 우리나라의 出産力 調節에 反映시켜 女子에게 就業의 기회균등, 門戶開放, 既婚女의 취업 提供 등을 實施하면 將來의 人口政策에도 도움이 되지않나 考慮하는 바이다.

한 人口集團의 出産力 水準은 社會的・文化的・經濟的 諸 環境要因의 影響을 받고 있어, 이 研究의 結果로서는 在日韓國人의 出産力 減少가 어떠한 要因에 의한 것인지지는 單的으로 說明할 수 없다. 그러나 在日韓國人 女子中 可姓 年齡 人口의 大部分이 日本에서 出生한 2世・3世인 것을 考慮하면 그들의 出産에 대한 行動樣式 및 子女數에 대한 態度 등이 日本人의 그것을 좇아, 近年에 있어 在日韓國人의 出産力의 減少에 影響을 준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²⁷⁾

24) 經濟企劃廳 國民生活調査部編, 國民의生活と意識의動向, 1977.

25) 信農每日新聞社編, 現代의差別と偏見, 新泉社, 1969, pp. 251~290.

26) Ross, J. A, and K. S. Koh, "Transition to the Small Family: A Comparison of 1964~1973. Time Trends in Korea and Taiwan,"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Initial Issue, 1977, pp. 14~31

27) Y. S. Kim, *The Demographic Behavior of Korean in Japan, Paper presented to the Tokyo Conference on Comparative Fertility Transition in Asia*, Tokyo, March, 1978, pp. 27~31.

在日韓國人は日本社會内에서의 差別問題, 社會的・法的地位問題, 子女教育問題, 結婚問題, 歸化問題 등 복잡한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어 더욱 韓國人으로서 人口資質 向上이 期待되는 바, 이에 계속적인 人口學的 및 保健學的 研究가 推進되어야 한다고 思料된다.

V. 結 論

在日韓國人の 靜態統計 및 처음 試圖된 出産力調査를 통하여 出産力水準 및 出産力에 關聯된 背景을 說明하고자 하였다. 主要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1955年 以後 粗出生率은 계속 減少되어 1975년에는 17.9(人口 1,000名當) 를 나타내고 있다.
2. 日本内 都道府縣別 母兒比는 都市地域이 地方보다 높았으며, 近年에는 그 差가 縮小되고 있다.
3. 女子人口의 就業狀況은 出産力에 間接적으로 影響을 주는 것으로 示唆되었다.
4. 子女數에 대한 態度에서 理想子女數는 夫가 3.0名, 妻가 2.8名이었고, 現實希望子女數는 夫가 3.1名, 妻가 3.0名으로 나타났다.

結論적으로 在日韓國人 女子人口의 就業活動 및 出産에 관한 行動樣式의 變化가 在日韓國人の 出産力에 影響을 주는 것으로 示唆되었다.

參 考 文 獻

安川正彬, 人口의經濟學, 春秋社, 1977.

伊藤達也, 山本千鶴子, “同居兒法による最近の差別出生力の計測”, 人口問題研究, 第142號, 人口問題研究所, 1977.

金潤信, “在日 韓國人の 最近 10年間における 人口學的推移”, 民族衛生, 第43卷 第3・4號, 1977.

經濟企劃廳 國民生活調査部 編, 國民の生活と意識の動向, 1977.

信農毎日新聞社 編, 現代の差別と偏見, 新泉社, 1969.

泉靖一, “東京における 濟州島人”, 民族學研究, 16(1), 1951.

日本厚生統計協會, 國民衛生の動向 - 昭和56年, 1981.

法務省編, 在留外國人統計(1964, 1969, 1974年), 1966, 1971, 1976.

法務省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編, 出入國管理統計年報, (1955~1975年), 1956~1976.

- 法務部 大臣官房 司法 法制調査部編, 第21 出入國管理統計年報, 昭和57年度, 1982.
- 厚生省 人口問題研究所, “昭和47年, 第6次 出生力調査 結果の要點”, 人口問題研究 資料, 第200號, 1974.
- 厚生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編, 人口動態統計(上・下卷) - 1955 ~ 1975年 各年 -, 1957~1977.
- 濱英彦, 子どもおよび 子供數に對する考え方, 人口問題研究, 第130號, 人口問題研究所, 1974.
- 毎日新聞社 人口問題研究 調査會, 第14回 全國家族計劃 世論調査報告書, 1977.
- Barclay, G. W., *Techniques of Population Analysis*, John Wiley & Sons, New York, 1958 .
- Bogue, D. J. and J. A. Palmore, “Some Empirical and Analytic Relations among Demographic Fertility Measures with Regression Models of Fertility Estimation,” *Demography* 1 : 3160338, 1964.
- Cho, L. J., et al., *Differential Current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hicago, 1971.
- Fong, M. 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Fertility : Some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Social Biology* 23 (1), 1976.
- Kim, Y. S., *A Demographic - Ecological Study of the Korean Population in Ja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kyo, 1978.
- _____, “Fertility of the Korean Population in Japan Influenced by a Folk Superstition in 1966”, *Journal of Biosocial Science*(11), 1979.
- _____, *The Demographic Behavior of Korean in Japan*, Paper Presented to the Tokyo Conference on Comparative Fertility Transition in Asia, Tokyo, 1978.
- Rodriguez, G., “Assessing the Availability of Fertility Regulation Methods : Report on a Methodological Study”, *World Fertility Survey, Scientific Report No. 1*, 1977.
- Ross, J. A. and K. S. Koh, “Transition to the Small Family : A Comparison of 1964~1973 Time Trends in Korea and Taiwan”,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977.

(Abstract)

Fertility of the Korean Population in Japan

Yoon Shin Kim*

This paper focuses on the fertility estimates and a set of backgrounds in the fertility survey of the Korean population in Japan.

Child-Woman Ratio estimates derived from the Koreans in Japan of 1969 and 1974 indicate that the ratio fell significantly from 454 to 445.

The first small-scale micro-survey which give further insights into factors affecting fertility was conducted during August 1977~March 1978 in Adachi-ku, Tokyo. From a survey, data on ideal family size are given. The overall mean ideal family size being 3.0 children of the Koreans in Japan are higher than those of Japanese (2.6 children) in 1977.

Factors likely to lead to the decline in fertility and ideal family size of the Korean population in Japan may include the Japanized fertility behavior and active participation of labor force of Korean wives in Japan.

* Researcher, Energy & Environmental Policy Center, Harvard University.